

[보도자료]

한국오가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위기임신 가족 지원 기부금 전달

-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어려움 겪는 지원 사각지대 미혼모·한부모 가구의 의료·주거 지원
- 상당수가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의료비 부담, 불안정한 거처... 악순환 방지와 자립 지원 필요

서울, 2025년 12월 8일 - 한국오가논(대표 김소은)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의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와 한부모 등 공적 지원 사각지대의 위기임신 가족을 돕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1,500 만 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취약계층 여성과 위기임신 가족이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의료·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한국오가논이 올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진행한 'Walk for Her Health(워크 포 허 헬스)' 걷기 캠페인에서 임직원과 참가자들이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함에 따라 이를 기부금으로 매칭해 조성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기부금을 활용해 산전·산후 진료와 기본 돌봄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가족에게 의료비와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건강한 출산과 회복을 돕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가족을 대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위생·난방·전기 등 기본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가구의 환경을 정비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2024년 기준 국내 미혼모는 약 2만 명¹, 한부모가구는 전체 가구의 6.5%²를 차지한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따르면, 지원을 요청하는 미혼모와 한부모 등 위기임신 가족의 상당 수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건강 관리와 육아, 자립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많은 가정이 유년기부터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돼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8년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 방안' 보고서에도 미혼모의 과반수 이상(65.8%)이 출산과 산후 회복 과정에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으며³ 임신과 출산 전후로 거처를 여러 차례 옮기거나 부모와의 관계 단절로 시설·지인 집에 임시로 머무는 등 주거 불안정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한국오가논 김소은 대표는 "한국오가논은 여성건강이 개인과 가정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는 믿음으로, 피임, 난임, 임신·출산, 폐경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과 인식 개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기부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움이 절실한 위기임신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을 돌보며 아이를 기르고 자립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올해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임직원과

1 통계청 KOSIS 「연령별 미혼모·미혼부 통계」, 202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I1601

2 국가통계포털(지표누리) 「한부모가구 비율」 최신 통계, 2024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방안」, p. 116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방안」, p. 247

참여자들이 함께한 캠페인의 의미 있는 결실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진정한 보탬으로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는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여성들이 갑작스러운 임신 앞에서 의료비는 물론 당장 머물 집조차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산전 검사를 미루거나, 회복이 필요함에도 산후조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런 현실에서 지원금 한 번이 어떤 가족에게는 살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한국요가논의 기부금이 바로 그런 절박한 순간에 놓인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닿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며 책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2007년 국내 최초로 미혼모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를 시작했으며, 2012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미혼모와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도록 지원해 온 단체다. 주요 활동으로는 위기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해 긴급주택을 운영하며 주거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미혼모와 한부모 가족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에 이를 수 있도록 금융, 교육, 취업, 법률, 아이돌봄 등 다각도의 통합지원을 수행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

